



조몬 시대의 해변 마을

국사 유적

# 사토하마 패총

Satohama Shell-Mounds



# 패총이란……

## 조몬인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

패총은 조몬인이 식량으로 채취하여 먹고 버린 대량의 조개껍질, 동물·새·어류 등의 음식 쓰레기, 파손된 토기나 석기, 뼈·뿔·조개 등으로 만든 생활 도구류를 버린 <쓰레기 버리는 곳>입니다.

## 조몬 시대의 타임캡슐

일본 토양은 인간의 뼈도 백 년 정도 지나면 아무 흔적 없이 흙으로 돌아갈 정도로 산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조개껍질의 칼슘 성분의 영향으로 토양이 중화되는 패총에는 보통은 남지 않는 뼈나 뿔 등의 종류도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있어, 당시 조몬인의 모습이나 자연환경, 식생활 등의 실태 조사에 유용하고 귀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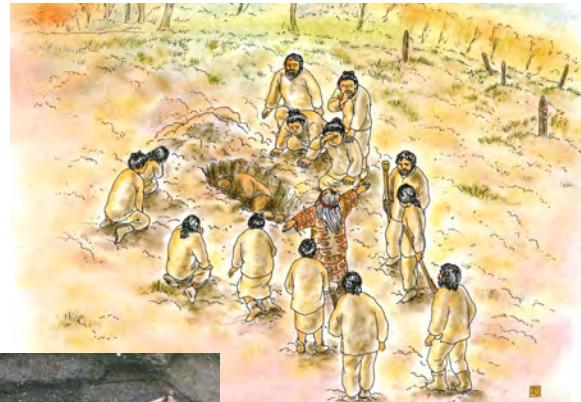
토기의 출토 상황(다이가코이 지점)



골짜기의 출토 상황(니시하타 지점) 패총 단면 (니시하타 지점)

패총 단면 (니시하타 지점)

골짜기를 매우 드롭 경계가 쌓인 사토하마 조몬인의 쓰레기. 바지락의 순패총, 어류 골층, 탄화물층 등 줄무늬로 경계가 쌓인 쓰레기를 통해 그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인 매장 삽화

하야카와 가즈코(早川 和子) 씨 작화

인골 매장 상황(다이가코이 지점)

## 성스러운 장송의 장

패총에서는 정중하게 매장된 인골이나 개의 뼈도 출토됩니다. 조몬인에게 패총은 우리 현대인이 이미지 하는 단순한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닌 자연의 읍혜와 도구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공양과 재생을 기원하는 <송별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 패총 공원 <마쓰시마>

### 조몬 시대의 패총

일본 전국에는 약 2,400곳의 패총이 존재합니다. 태평양 측을 중심으로 북부지역에는 오후초크 연안, 우치우라만, 산리쿠 연안, 센다이만, 이와키 연안, 가스미가우라 연안, 도쿄만, 이세만, 세토나이카이 연안, 아리아케해 연안 등에 패총이 다수 형성되었습니다.

### 마쓰시마만 연안 패총군

미야기현은 지바현, 이바라키현에 이어 패총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210곳에 패총이 존재합니다. 이 중 마쓰시마만 연안에는 약 70곳의 패총이 집중하고 있어, 특히 패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마쓰시마만 연안의 패총군은 ①사토하마 패총을 중심으로 한 미야토지마 유적군, ②도친하마 패총, 니시노하마 패총을 중심으로 한 마쓰시마 유적군, ③다이가코이 패총·니가덴 패총을 중심으로 한 시치가하마 유적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서 약 10km, 남북 약 8km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마쓰시마 만에는 조몬 시대 동안 정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유적을 중심으로 지름 3~4km 정도의 영역(세력권)을 보유한 3개의 조몬 마을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패총이 존재하는 지대  
조몬 시대의 패총 밀집지대  
오키무라(1994)를 일부 개변



마쓰모토 히코시치로(松本彦七郎) 박사

마쓰모토 박사가 발표한 출토 상황 스케치  
(『현대의 과학』7-2)미야토섬 유적 조사회에 의한 다이가코이 지점의 조사  
(1955년, 사이토 려지(齋藤良治) 씨 제공)데라시타가코이 지점 인골 출토 상황  
(1956년, 「특별 명승 마쓰시마」)나시노키 지점 조사  
(1961년, 고토 가즈히코(後藤勝彦) 씨 제공)도호쿠 역사 자료관에 의한 니시하타 지점 조사  
(1979~1984년)

### Satohama 3 Shell-Mounds

## 사토하마 패총 연구의 역사

일본 패총의 역사는 1877년의 EDWARD SYLVESTER MORSE에 의한 도쿄도 오모리 패총의 발굴이 시초입니다. 사토하마 패총도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으며 메이지 시대 (1868~1912) 말 무렵에는 전국적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골각제 어구나 진귀한 사슴뿔로 제작된 허리 장식이 주목받아 Neil Gordon Munro의 「Prehistoric Japan(선사시대의 일본)」, 기시노누에 가마키치(岸上鎌吉)의 「Prehistoric fishing in japan(일본 선사시대의 어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토하마 패총 최초의 학술적인 조사는 1918~9년에 도호쿠 제국대학 이학부의 마쓰모토 히코시치로(松本彦七郎), 같은 대학 의학부의 하세베 고تون도(長谷部言人) 등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패총 유적의 층위학적 발굴 조사를 추진하여 토기 형식 편년 연구의 기반을 다졌고, 다수의 조문 인골이 발견되어 일본인론이나 고환경 분석 등 오늘날과 동등한 수준의 뛰어난 조사 연구를 실천했습니다.

사토하마 패총은 그 이후에도 가토 다카시(加藤孝)·고토 가즈히코(後藤勝彦)를 중심으로 한 미야토지마 유적 조사회와 후지누마 구니히코(藤沼邦彦)·오카무라 미치오(岡村道雄) 등 도호쿠 역사 자료관(현 도호쿠 역사박물관)이 조사를 지속하였고, 토기 편년, 골각기 연구, 조문인의 생업 활동과 식생활 복원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 사토하마 패총의 주된 조사 연구의 역사

조사년	주요 조사자	조사지구	키워드
1897년대	다카시마 다메지(高島多米治)	불명	표체, 녹각제 어구, 토우
1918~9년	마쓰모토 히코시치로(松本彦七郎) 하야사카 이치로(早坂一郎) 하세베 고تون도(長谷部言人)	데라시타가코이 지점	인종론 최초의 학술적 발굴 집단묘 《조문인의 인골 발굴(14명 18체)》 증위학적 발굴 《토기 형식 편년 연구의 기초》 동물 유체 분석 《고환경 복원》
1952~1962년	도호쿠대학 교육학부 미야토지마 유적 조사회	다이가코이 지점 데라시타가코이 지점 하타니카 지점 나시노키 지점 소데쿠보 지점	토기 면년 연구 조온 후기, 조문 인골(머리 없음·재장?)
1979~1984년		니시하타 지점	조온 말기, 쓰래기의 최소단위 《전체 생플링》 동물 유체 분석 《조문인의 생업과 식생활 복원》 다양한 골각제 어구·장신구 《국가 중요문화재》
1984~1986년		니시하타기타 지점	조온 말기의 재영 흔적
1986~1987년	도호쿠 역사 자료관 (현 도호쿠 역사박물관)	다이가코이초부 지점	조온 전·중기
1989~1990년		나시노히가시 지점	조온 전기
1991년		다이가코이 (가자고시) 지점	조온 후기, 골각제 어구·장신구
1996년~	오키마쓰시마 조문무라 역사 자료관	니시하타기타 지점 니시하타 지점 나시하타니시 지점 사토 지점 다이가코이 지점 데라시타가코이 지점	마을의 병위와 내용 파악 조온 말기~야요이 시대 중기의 재영 흔적 조온 전·후기의 토단층 《식생 복원, 조온 전기의 밤나무 숲》 조온 중·후기의 쓰나미(지진해일) 흔적?  조온 후기~야요이 시대 패총 고대의 수혈 주거 터, 재영 토기 종, 근세의 묘  고대의 패총  조온 후기 알의 패총, 알기의 집단묘(조온 인골 3체) 조온 중기의 패총, 알기의 거주 지역 《수혈 주거 터》  조온 말기의 패총

## 사토하마를 둘러싼 바다와 숲의 환경

### 변함없는 바다의 경관

마쓰시마 만은 빙하기 시대 이후의 온난화에 의한 해수면의 상승에 의해 침수, 형성되었으며, 지금부터 약 7,000년 전 무렵부터 조몬인이 마쓰시마만 연안에 거주하며 많은 패총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이 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도 바다가 까워지거나 멀어지면서 반복적으로 찾은 지형 변화가 발생했으나, 만 내의 충적 작용이 완만해 사토하마 마을을 둘러싼 바다의 경관은 조몬 시대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조몬 시대 후기 후반 무렵부터 주체가 되는 조개가 눈알고동에서 바지락으로 추이하고 있어 바다의 해저 상태가 암초성(岩礁性)으로부터 모래·사니성(砂泥性)으로 서서히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 사토하마인의 생활을 지탱한 숲

사토하마 패총의 지층에 포함되는 꽃가루, 종실, 목재 등 분석의 결과 사토하마인의 생활을 지탱한 조몬의 숲은 밤나무·칠엽수·가래나무·개서어나무·새우나무·너도밤나무·줄참나무·느티나무·푸조나무·옻나무 등의 낙엽 광엽수림으로 구성되었으며 풍요로운 사토야마(마을 숲)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밤나무 꽃가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적어도 6,500년 이상 전부터 관리, 재배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에도 시대 하이구 시인 마쓰오 바쇼(松尾芭蕉)가 읊은 시 「마쓰시마」를 대표하는 소나무도 조몬 시대부터 자생한 소나무로 밝혀지고 있으나, 현재 감상할 수 있는 소나무가 자아내는 아름다운 경관은 1,000년~500년 정도 전부터 형성된 모습이라 합니다.

## 사토하마의 마을

사토하마 패총은 마쓰시마만 내 최대의 섬·미야토지마에 있습니다. 동서 약 640m, 남북 약 200m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패총입니다. <뛰어난 골각기나 다종다양한 생활 관련 유물이 출토되며 당시의 생활 실태를 복원하는 데 있어, 귀중한 정보가 담긴 귀중한 유적>으로서 1995년 국사유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패총은 서패총(다이가코이초부 히가시 사면·가자고시 지점), 동패총(나시노키·하타나카·소데쿠보 지점), 북패총(데라시타가코이·니시하타·사토 지점)의 3영역의 패총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토하마인은 <서패총(전기 초반~중기 중반)→동패총(중기 중반~후기 중반)→서패총(후기 전반~말기 중반)→북패총(후기 말~야요이 시대 중기)>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에서 천년 단위로 마을 장소를 이동하면서 각 지점에 장기간에 걸쳐 패총을 형성했습니다. 또, 해변에서는 제염, 조개 까기 작업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니시하타기타 지점).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섬의 4곳 해변 가운데 외양과 접한 무로하마·오오하마·쓰키하마의 3곳의 취락이 고멸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만, 사토하마 패총 주변의 주로 돈대에 자리한 취락은 쓰나미(해일)에 의한 피해가 깊지 않습니다. 사토하마의 조몬인은 해변에서 어로, 조개 까기, 제염 등의 생업 활동을 하였고, 취락은 바다와 접한 언덕 위를 선택해 생활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니시하타기타 지점에서는 조몬 시대 중기(약 4,600년 전)와 후·말기(약 3,100년 혹은 3,500~3,600년 전)의 쓰나미(해일) 퇴적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돈대에 자리한 당시 마을은 쓰나미(해일) 피해를 보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쓰시마만과 사토하마 패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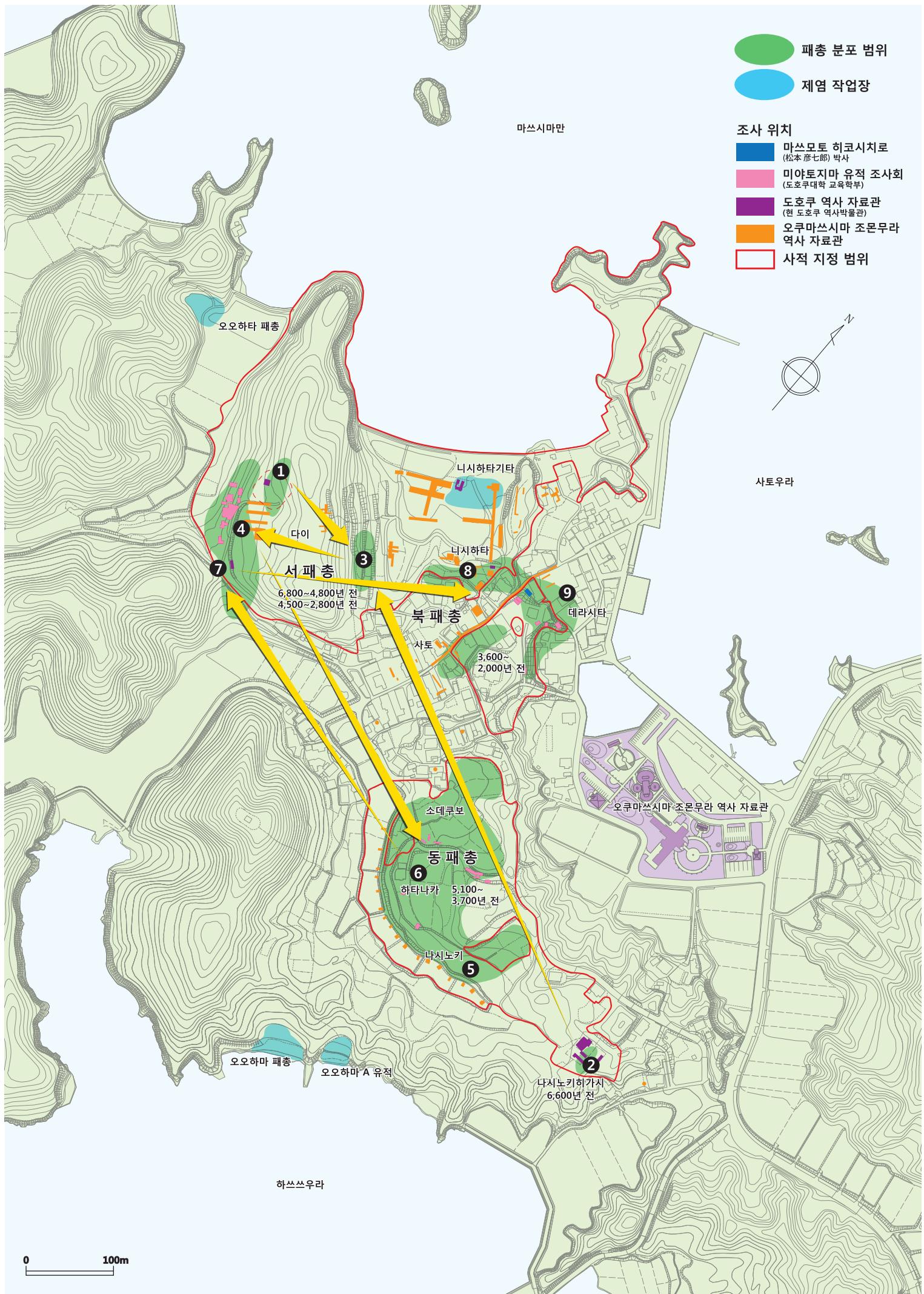


북패총(사토하마 조몬노사토 사적공원, 니시하타·니시하타기타 지점)

지점명	패총의 표고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조개의 종류 (바위 밭 조개와 모래·진펄 지역 조개의 비율)																					
		전기		중기	후기		6,000		5,000		4,000		3,000		2,000년 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10	20	30m																							
서패총	① 다이가코이 초부																											
	③ 다이가코이 히가시 경사면																											
	④ 다이가코이																											
	⑦ 다이가코이 가자고시		10	20	30m																							
동패총	② 나시노키히가시																											
	⑤ 나시노키																											
	⑥ 하타나카·소데쿠보																											
북패총	⑧ 니시하타																											
	⑨ 데라시타가코이																											

사토하마 마을의 변천과 조개 종류의 변화

※각 지점의 번호는 오른쪽의 지형도 부호와 동일.



사토하마 패총 전체도

## 사토하마인의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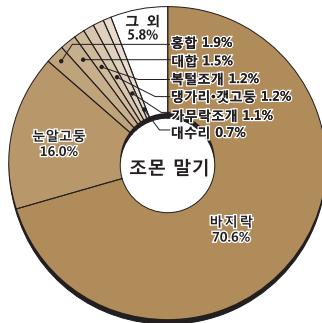
패총으로부터 출토된 생활 도구류나 음식 쓰레기 등을 자세히 조사하면 어로나 사냥을 비롯한 계절마다의 생업 활동과 조몬인의 식생활 실태가 밝혀집니다.

사토하마인은 사계마다 자연의 은혜를 효율적으로 도입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봄, 가을에 집중하는 계절의 은혜를 식량이 부족한 겨울과 한여름에 대비해 보존식으로 가공하거나, 어로나 사냥을 하면서 틈틈이 생활 도구 만들기를 하며 다가오는 혹독한 계절에 대비했습니다. 참으로 계획적인 생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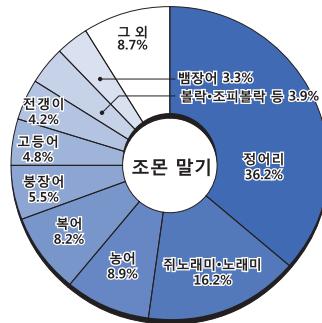
사토하마인의 식물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인골이나 꽃가루 등의 분석에 의하면 나무 열매나 버섯·산채·고구마류 등의 식물질 식료도 많이 섭취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토하마인은 다종다양한 풍부하고 풍족한 식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 봄** 바지락을 중심으로 조개나 해조류의 채취. 후미에 떼를 지어 몰려온 정어리나 복어 등을 어획. 산에서는 청나래고사리나 고비 등의 산나물을 채취.
- 여름** 조개나 성게·꽃게 등을 채취. 외양에서 참돔·감성돔·대형 농어·방어·참치 등을 어획. 제염.
- 가을** 후미에 몰려온 전갱이·고등어를 어획. 산에서는 밤·호두·칠엽수 열매나 버섯을 집중적으로 채취.
- 겨울** 사슴·멧돼지 등의 짐승이나 기러기·오리 등의 겨울 철새를 포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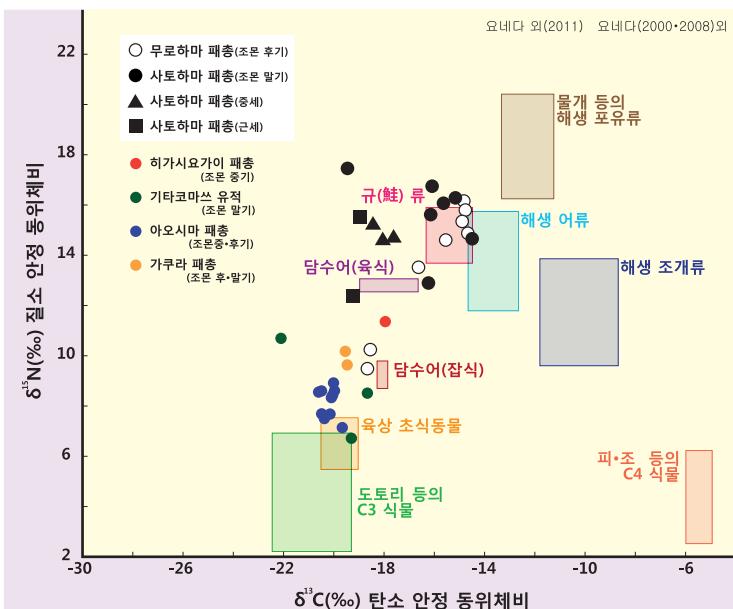
식용한 조개의 비율



어류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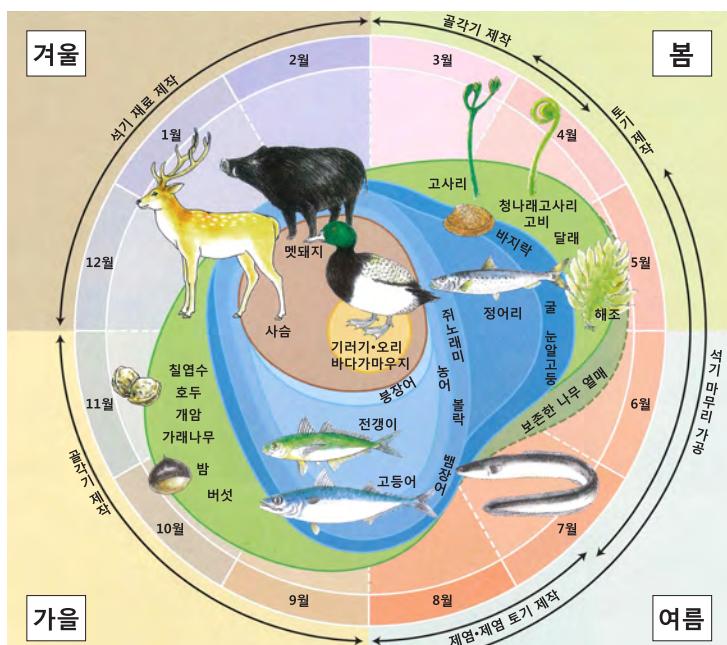


사토하마인이 어획한 어패류(니시하타 지점)



인골로부터 식생활 생태 추정(인골의 탄소·질소의 동위체비)

인골에 포함되는 식료 자원의 탄소·질소의 동위체비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미야토지마(사토하마·무로하마)의 조몬인은 사슴·멧돼지 등의 짐승이나 식물질 식료보다 어류나 조개 등의 해산 자원을 많이 섭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조몬인의 식료·생업 활동 달력

그림은 토양마다 회수한 조몬인의 쓰레기를 조사해, 조개껍질이나 뼈에 새겨진 성장선, 물고기의 회유 경로, 새의 이동 습성 등을 바탕으로 쓰레기마다 계절을 추정, 식료 획득이나 생활 도구 만들기 등 조몬인이 평소 어떤 일을 했는지 조몬인의 1년을 달력으로 나타내 내용을 짚게했습니다.

동·식물질 식료의 비율은 인골의 탄소·질소 동위체비 분석과 현대의 수렵 채취 민족의 식료 비율을 참고로 산출했습니다.

### 칼럼 사토하마 인골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사토하마 패총에서는 지금까지 60체를 넘는 조몬 인골이 발굴되었다. 그 특징은 안면 폭이 넓으면서 세로로 납작하며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안와(眼窩, 눈구멍)는 거의 장방형.

안리는 죽임계처럼 학쳐지는 <절단 교합>으로 빼드렁니의 상태가 완만한 전형적인 조몬인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성인이나 관훈상재시 등의 통과 의례로서의 <발치>도 위턱의 송곳니나 측절치(옆앞니)에 많이 볼 수 있다.

또, 맨몸으로 잠수하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특징인 <외이도 골종>, 병력이나 영양 상태·식사 사정을 나타내는 <충치><애나엘 질감 형성>, 주자았는 자세를 많이 취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준거면(蹲踞面) 형성> 등 다양한 생활 흔적이나 병흔도 관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화학적인 분석에 의한 생전 식생활의 복원(탄소·질소 안정 동위체비 분석)이나 정확한 연대 측정이 가능해져, 인골로부터도 사토하마 마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밝혀지고 있다.



사토하마인 여성의 복안상

(가와쿠보 요시노리(川久保善智) 씨 제작)



외이도 골종 (귀 속에 생기는 종양)



충치

18~20세 정도의 성인 여성. 해부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개골에 살을 붙여 조몬인의 직계로 추정되는 아이누인의 이목구비를 참고로 복안했다.



## 개펄 조개잡이

사토하마 마을의 봄은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하는 개펄 조개잡이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량으로 채취한 바지락은 토기로 익혀 건조 조개를 만들어 보존식으로 보존하거나 산간 마을과의 교역품으로 사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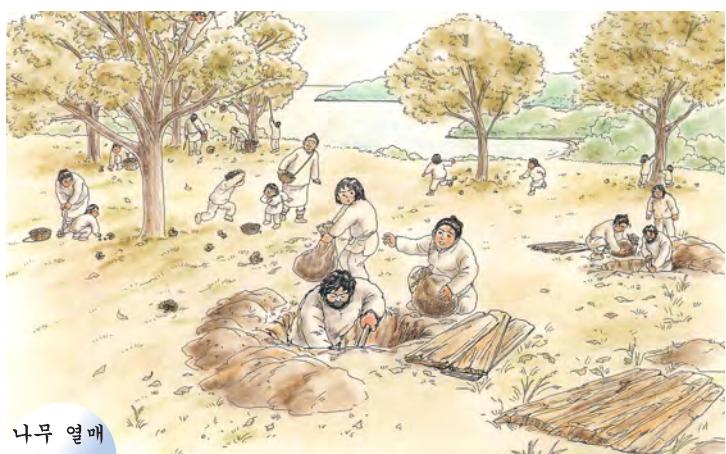


## 제염

한여름, 숨 막히는 짬통 더위 속에서 사토하마 인은 바닷물을 토기에 줄여 보존용, 양념용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제조한 소금은 멀리 산간 마을 까지 운반되었습니다.



제염 토기(니시하타 지점)



## 나무 열매 채취

가을에는 마을 주민들이 총출동해 나무 열매를 채취, 골을 파서 굴속에 저축했습니다. 사토하마 마을에서는 6,500년도 전부터 밤나무의 관리·재배를 했습니다.



조몬 중기의 어구(나시노카·하타나카 지점)



조몬 후·말기의 어구(다이가코이 지점)



## 어로

초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해안 가까이에 다가오는 농어, 참돔, 감성돔, 마구로, 방어 등의 대형 물고기를 낚시바늘이나 손작살, 착살로 어획했습니다.

## 패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토하마인의 사계와 생업 활동



## 사냥

나무들이 시들고 시야가 트이는 겨울철이 사냥의 계절. 남자들은 사슴이나 엣돼지 등 짐승을 사냥개를 사용해 집단으로 물이를 하여 활과 화살로 사냥을 했습니다. 바다에서는 바다가마우지, 오리류 등의 겨울 철새를 잡았습니다.



사냥 도구(다이가코이 지점)



돌살족이 박힌 사슴의 등뼈  
(다이가코이 지점)

## Satohama Shell-Mounds



4,900년 전의 토기(다이가코이 지점)

3,300년 전의 토기(다이가코이 가자고시 지점)

2,800년 전의 토기(니시하타 지점)《중요문화재》

그릇



장신구



토제 귀걸이·구슬(다이가코이 지점)

기원



골각제 머리핀(다이가코이 지점)



석봉  
(니시하타·다이가코이 지점)  
오른쪽은 토제품

골각·여금니·조가비 장신구  
(다이가코이·데라시타가코이·사토 지점)



허리 장식(다이가코이 지점)

허리 장식(니시하타 지점)《중요문화재》

암우·암판(다이가코이 지점)

《중요문화재》는 도호쿠 역사박물관 소장